

## 유아의 도덕적 정서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 공감과 동정심을 중심으로

이 용 주<sup>1</sup>

### The Effect of Children's Moral Emotions on Social Competence : Focusing on Empathy, and Sympathy

Lee, Yong Joo<sup>1</sup>

본 연구는 유아의 도덕적 정서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공감과 동정심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유아기 도덕교육 및 정서교육 프로그램의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개인 및 부모변인에 따른 유아의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는 유아의 연령과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유아의 공감과 동정심은 사회적 유능성의 긍정적 상호작용, 유능성, 대인 행동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유아의 동정심은 사회적 유능성의 지도성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유아의 공감은 사회적 유능성의 긍정적 상호작용, 유능성, 대인 행동, 활동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유아의 동정심은 지도성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4, 5세 유아의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를 강화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회적 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 주제어 도덕적 정서, 공감, 동정심, 사회적 유능성

<sup>1</sup> 제1저자(교신저자) : 경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E-mail : childpeace@naver.com)

## I. 서론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타인과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한다. 공동체 안에서는 타인을 받아들여 원만한 관계를 이루며,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적 욕망과 대립되는 타인의 가치를 조절하고 조율해야 한다. 개인적 욕망과 타인의 가치를 조절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들 중 하나는 선악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며,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준수하는 능력인 도덕성(정옥분, 2007)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성은 주로 도덕적 판단, 도덕적 정서, 도덕적 행동의 세 가지 측면에서 언급되고 연구되어왔다(정옥분, 2007). 이들 중 도덕적 정서는 인간의 도덕 행동의 중요한 원천으로 인식되어왔다(Walker & Taylor, 1991). 최근에 이르러 사회공동체의 미덕을 파괴하는 이기심·경쟁심·공격성·부정부패 등의 부정적인 심리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덕적 정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인재, 2003; 하수경, 노희정, 2014).

도덕적 정서란 인간의 감정과 행위에 대해 옳고 그르며 좋고 나쁨을 식별하는 독특한 감각 작용(칸트사전, 2015)을 의미한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도덕적 정서는 한 인간이 자신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도덕적 표준에 따라 행위를 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게 될 때(김태훈, 2013), 그 일치 또는 대립의 의식에서 생겨나는 쾌와 불쾌의 감수성(칸트사전, 2015)으로 표현할 수 있다. 도덕적 정서를 다른 정서들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자신과 타인에게 적용되는 규칙(또는 원리)을 준수하거나 위반했을 경우에 느끼는 자각(Wilson, 1989)과, 자신의 사리사욕을 벗어나 타인의 복지를 향한 이타적 경향성(김태훈, 2013)의 유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죄의식, 수치심, 비난, 혐오, 분노, 자괴심, 감탄, 공감, 동정, 존경, 감사 등과 같은 정서들은 도덕적 정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도덕적 정서 중 공감과 동정심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자극하며 공격성과 부정적 행동을 억제하고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도덕적 정서의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공감이란 타인의 생각이나 느낌 또는 처한 상황이나 정서 상황을 대리적으로 느껴 보고 타인의 입장이 되어(박성희, 1996), 그를 수용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같이 나누는(장미선, 문혁준, 2004) 반응이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의도와 행동을 예측해야 하며, 자신을 조절하고 타인을 수용해야 한다(이지연, 광금주, 2010; Baron-Cohen & Wheelwright, 2004). 한편, 동정심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동포감정(Smith, 2009)으로, 감정이입에 따른 공감에서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궁극적인 복지와 행복을 주고자 하는 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장영주, 2013).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공감(empathy)은 다른 사람의 기분과 경험을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능력(Paul & Robert, 2012)으로 한 인간이 나타내는 타인에 대한 정서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동정심(sympathy)은 연민의 감정 등과 같은 도덕적 감정들을 일으키기 위한 작동 원리와 힘으로 작용(김용환, 2003; Scheler, 2009)하여 공감에 뿌리를 두고 타인을 위하여 무엇인가 행동하려는 대상 지향적인 정서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감과 동정심이 타인에 대한 이해와 타인을 위한 행동 반응이라는 이해는 사회 안에서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사회적 유능성(Rose-Krasnor, 1977)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사회적 유능성이란 개인이 자아를 존중하며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지각하는 것이며, 사회적 이해와 주변 상황을 고려한 반응을 선택하고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김광웅, 조유진, 홍기목, 2005). 사회적 상호작용을 수행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식과 이해(Katz & McCellan, 1997)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지식과 이해는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타인의 반응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이윤옥, 2003; Bednersh & Peck, 1986)하는 것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로써의 공감과 타인을 위한 행동 반응으로써의 동정심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감과 동정심이 있는 유아들은 다른 유아들과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유지하며, 타인에 대해 편안하고 안정감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공감과 인간의 사회성과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공감과 사회적 행동과의 관련 연구(박성희, 1996; 유연경, 유미숙, 2012; 전은정, 2009; 조한익, 이미화, 2010; Eisenberg & Fabes, 1991; Rubin & Schneider, 1973), 이타행동과의 관련 연구(조효진, 손난희, 2006; Eisenberg & Fabes, 1991), 도덕성과의 관련 연구(Hoffman, 2001; Malti, Eisenberg, Kim, & Buchmann, 2013; Malti, Gummerum, Keller, & Buchmann, 2009), 또래수용과의 관련 연구(김향미, 2010; 김현숙, 2012; 이성진, 2005) 등이 연구되어 왔다.

그런데 이들 연구들은 초등학교 이상의 아동(박성희, 1996; 유연경, 유미숙, 2012; 전은정, 2009; Rubin & Schneider, 1973)과 청소년(조한익, 이미화, 2010; 조효진, 손난희, 2006)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의 잠재적 동기요인으로써 발달심리학자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아온 사실과,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사이의 정적 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소수에 불과한 이유에 대해 조은진(1993)은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정확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관된 관련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몇몇 연구들의 경우에도 유아의 공감과 개인내적인 요인들 간의 상관성이 미미하게 나타나거나 유의미한 영향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김향미, 2010; 김혜주, 2013; 김현숙, 2012). 현재까지 유의미한 영향력을 입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3세 때 자조능력이 5세 때 공감능력을 예측한다는 이지연과 곽금주(2010)의 연구, 유아의 사회적 기질이 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장미선과 문혁준(2004)의 연구, 4, 5세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공감이 의미 있는 정적관계가 있다는 최미숙(2010)의 연구 등이 있다.

한편, 유아의 동정심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최근에야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공감과 더불어 동정심이 오랫동안 연구의 대상이 되어 온 것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다. 국내의 연구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동정심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김진아와 엄정애(2006), 최양미, 이태섭 그리고 김보현(2014)의 연구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된다. 김진아와 엄정애(2006)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동정심과 도덕적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동정심은 도덕적 행동에서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최양미 등(2014)은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인기도에 따른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정서 및 도덕적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기 유아의 동정심은 도덕적 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유아의 공감과 동정심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연구대상의 연령이 다양하게 다루어

지지 않았고, 도덕적 행동과 관련된 변인들만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유아들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들을 폭넓게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국내 연구의 한계성은 도덕적 정서과 이기심·경쟁심·공격성·부정부패 등 부정적인 심리현상에 대한 대안의 기능을 한다는 제안(이인재, 2003)에 명쾌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유아기의 도덕적 정서의 수준을 상승시키는 것은 사회 속에서 원만한 삶을 살고 사회적으로 유능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정옥분, 2007)는 사회적 기대에도 타당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유아들의 도덕적 정서와 사회적 유능성과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구는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필수불가결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만 4, 5세 유아의 도덕적 정서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공감과 동정심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유아기 도덕 교육 프로그램과 도덕적 정서 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및 부모변인(유아연령, 부모학력)에 따른 유아의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의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와 사회적 유능성(사회적 능력의 제안성·협조성·긍정적 상호작용·유능성·지도성, 사회적 효능성의 대인 행동·활동 참여·정서적 적응)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유아의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가 사회적 유능성(사회적 능력의 제안성·협조성·긍정적 상호작용·유능성·지도성, 사회적 효능성의 대인 행동·활동 참여·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와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4, 5세 유아 182명이다. 이들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96명(52.7%), 여아가 86명(47.3%)이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N=182)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유아 연령	4세	90(49.5)	아버지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6(36.3)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82(45.1)
	5세	92(50.5)		전문대 졸업	42(23.1)		전문대 졸업	42(23.1)
				대학교 졸업	57(31.3)		대학교 졸업	40(21.9)
				대학원 졸업	17( 9.3)		대학원 졸업	18( 9.9)

## 2. 연구도구

### 1)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의 측정

도덕적 정서 중 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nrad, et al.(1999)이 제작한 척도를 김진아와 엄정애(2006)가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공감의 내용은 8가지 상황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느낌과 관련된 질문이다. 도덕적 정서 중 동정심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nrad, et al.(1999)이 사용한 도구를 토대로 Malti, et al.(2009)이 사용한 도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동정심의 내용은 6가지 상황에 대하여 타인의 어려운 처지를 딱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질문형식은 3단계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담임교사가 질문하고 유아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유아의 대답은 ‘많이 그렇다’는 3점, ‘조금 그렇다’는 2점,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배점하였다. 측정문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 결과, 이들의 문항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는 .75 이상으로 설문문항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항 내용과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도덕적 정서(공감) 측정 도구의 내용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내용	상황	Cronbach's $\alpha$
공감	같이 놀이 할 친구가 없는 사람, 다쳐서 아파하는 사람, TV 슬픈 장면, 다친 동물, 울고 있는 사람 등 각 상황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느낌	8	.87
동정	장난감이나 옷이 없는 친구, 놀림을 받는 사람, 내가 가진 것들을 갖지 못한 사람,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 등 각 상황에 대하여 타인의 어려운 처지를 딱하고 가엾게 여기고 도와주려는 마음	6	.75

### 2) 사회적 유능성의 측정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윤지영과 이용주(2006)가 재구성한 사회적 능력 질문지와 한규령(2005)이 번안한 사회적 효능성 질문지를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2개의 설문지를 사용한 이유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면밀히 측정하기 위함이다. 사회적 유능성은 상호관계능력, 권리주장 능력, 자기노출 등 다차원적인 특성(Buhr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 1988)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유능성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능한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하기 위함이었다.

우선, 윤지영과 이용주(2006)가 재구성한 사회적 능력 질문지는 Pease, Clark과 Crase(1979)가 제작한 Iowa Social Competence Scale: Preschool Form을 기초로 하여, 5개 하위영역,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분석의 과정에서 5개 하위영역, 22개 문항이 도출되었다. 사회적 능력의 요인분석 산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사회적 능력 측정 도구의 내용과 요인분석 결과

문항번호 및 내용	1	2	3	4	5	공통분
11. 여럿이 함께하는 활동을 자기가 먼저 생각해 낸다.	.769					.712
14. 친구들과 놀 때 다른 아이에게 지시한다.	.753					.622
12. 자신의 권리와 요구를 적절히 주장한다.	.702					.649
10. 친구들과 놀이할 때, 자기가 먼저 어떤 놀이를 하자고 제안한다.	.599					.596
15. 친구들에게 자기 집에 가서 놀자고 제안한다.	.496					.562
16. 좌절과 분노를 효율적으로 표현하며 다른 사람, 자기 자신, 물건 등을 해하지 않는다.		.754				.611
19. 다른 사람의 놀이와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다.		.712				.595
20. 다른 아이가 제안하는 놀이도 잘 따라 논다.		.627				.649
18. 다른 사람들과 적절하게 타협한다.		.565				.626
17. 놀이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룹에 접근할 때 거부당하지 않는다.		.488				.509
21. 프로그램이나 영역활동에 기꺼이 참여한다.		.446				.552
7. 다른 또래 어린이나 어른을 수용하고 좋아한다.			.747			.696
1. 처음만난 아이에게도 말을 건다.			.631			.664
22. 자기가 놀고 있을 때, 다른 아이를 잘 끼워준다.			.536			.663
9. 긍정적인 방법으로 다른 아이에게 접근한다.			.519			.612
4. 긍정적인 분위기이다.			.495			.623
5. 한두명의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			.468			.322
28. 약한 친구들을 못살게 구는 아이들로 인해서 쉽게 겁먹지 않는다.				.796		.676
29. 거부감 없이 공정하게 책임진다.				.680		.677
27. 유머 감각이 있다.				.509		.579
24. 다른 아이들에게 게임방법을 가르쳐준다.					.794	.789
23. 친구들과 놀 때, 친구에게 장난감을 갖고 노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778	.797
고유치	9.497	2.229	1.475	1.373	1.216	
설명 변량	32.747	7.685	5.086	4.735	4.194	
누적설명변량	32.75%	40.43%	45.52%	50.25%	54.44%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요인 분석한 결과, 5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의 요인부하량은 .446에서 .796으로 높은 편이었다. 첫 번째 요인은 제안성이라고 명명하였으며, 문항 내용은 놀이의 제안·자신의 요구주장·새로운 것 고안 등과 관련된 5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9.497, 설명변량은 32.747이었다. 두 번째 요인은 협조성이라고 명명하였으며, 문항 내용은 감정의 효율적 표현과 적절한 타협 등과 관련된 6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2.229, 설명변량은 7.685이었다. 세 번째 요인은 긍정적 상호작용이라 명명하였으며, 문항 내용은 초대 받기·환영받기·긍정적 분위기·상호작용과 관련된 6

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1.475, 설명변량은 5.086이었다. 네 번째 요인은 유능성이라 명명하였고, 문항 내용은 비의존과 공정함 등과 관련된 3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1.373, 설명변량은 4.735이었다. 다섯 번째 요인은 지도성이라 명명하였고, 문항 내용은 놀이의 설명과 게임 방법 설명 등과 관련된 2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1.216, 설명변량은 4.194이었다.

한규령(2005)이 재구성한 사회적 효능성 질문지는 3개 하위영역,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분석의 과정에서 3개 하위영역, 15개 문항이 도출되었다. 사회적 효능성의 요인분석 산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사회적 효능성 측정 도구의 내용과 요인분석 결과

문항번호 및 내용	1	2	3	공통분
10. 다른 아이들에게 놀이를 제안한다.	.842			.758
9. 다른 아이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792			.729
7. 다른 아이들과의 놀이를 할 때 리더 역할을 한다.	.777			.683
14. 다른 아이들과 협의적이며 문제 상황에서 의논과 제안을 잘한다.	.705			.640
11. 다른 아이들의 의견이나 제안을 잘 수용한다.	.652			.691
16. 다른 아이들과 놀이나 활동에서 친구를 잘 돕거나 이끈다.	.641			.640
12. 다른 아이들과 놀이 활동을 할 때 규칙을 잘 따른다. 또는 제안을 한다.	.569			.687
13. 다른 아이들과 잘 협력하여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704		.752
15. 다른 유아들과 성 구분 없이 놀이 속에서 신체 접촉을 한다.		.636		.431
5. 다른 아이들이 놀이나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598		.684
8.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 준다		.556		.616
3. 다른 아이들을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를 잘 한다.			.850	.764
4.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안다.			.794	.757
6.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한다.			.542	.598
1. 정서적으로 편안하다.			.448	.556
고유치	7.194	1.533	1.084	
설명 변량	44.964	9.578	6.772	
누적설명변량	44.96%	54.54%	61.31%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사회적 효능성을 요인 분석한 결과,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의 요인부하량은 .448에서 .850으로 높은 편이었다. 첫 번째 요인은 대인 행동

이라고 명명하였으며, 문항 내용은 의견의 전달·의논·수용 등과 관련된 7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7.194, 설명변량은 44.964이었다. 두 번째 요인은 활동 참여 능력이라고 명명하였으며, 문항 내용은 활동에 참여하고 유지하는 능력 등과 관련된 4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1.533, 설명변량은 9.578이었다. 세 번째 요인은 정서적 적응이라 명명하였으며, 문항 내용은 타인에 대한 편안함과 관련된 4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1.084, 설명변량은 6.772이었다.

추출된 설문문항에 대한 질문형식은 5단계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유아의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성을 평정하였다. 유아 어머니의 평정은 ‘매우 그렇다’는 5점, ‘조금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배점하였다.

최종 구성된 설문문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 결과, 이들의 문항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07이상으로 설문문항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종 구성된 사회적 유능성 측정 도구의 문항 내용과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최종 구성된 사회적 유능성 측정 도구의 내용과 신뢰도

변인	하위요인	문항내용	문항수	Cronbach's $\alpha$
사회적 능력	제안성	놀이의 제안, 자신의 요구주장, 새로운 것 고안	5	.807
	협조성	감정의 효율적 표현, 적절한 타협, 방해하지 않음	6	.808
	긍정적 상호작용	초대받기, 환영받기, 긍정적 분위기, 상호작용	6	.719
	유능성	독립성, 유머 감각, 공정성	3	.707
	지도성	놀이의 설명, 게임 방법 설명, 끼워주기	2	.862
사회적 효능성	대인 행동	의견의 전달, 의논, 수용	7	.901
	활동 참여	활동에 참여, 활동을 유지	4	.747
	정서적 적응	타인에 대한 편안함, 안정감	4	.747

### 3. 연구 절차

예비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만 4, 5세 유아 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 연구에 사용할 문항을 선정하여 도구화하였다. 연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모호하거나 생소한 단어들과 오타자가 수정되었다. 또한 담임교사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 유아의 공감과 동정심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5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대상은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 강원도 원주시와 속초시에 위치한 11개 유아교육기관에 참여하는 만 4, 5세 유아들이다. 대상 표집의 방법은 경기도와 강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사회적 환경이 유사한 15개 유아교육기관 중 연구 동의를 얻은 11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연구 동의를 절차는 먼저 기관의 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여부를 조사한 뒤, 동의한 기관의 교사들 중 4, 5세



담당교사에게 설문문항을 제시하여 연구의 동의를 의뢰하였다. 이 후, 동의한 교사가 담당하는 유아의 어머니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가정통신문과 연구동의서를 배포하고, 연구에 동의한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유아교사와 유아의 어머니에게 동일한 시기에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유아들은 공감과 동정심에 관한 설문지에 참여하였다. 질문의 형식은 답임 교사가 질문하고 유아들이 표시하면, 답임교사가 유아들의 표시를 설문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 답임교사의 개인적 변인이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제하였는데, 4년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경력이 5년 정도인 교사를 선정하였다. 또한 교사의 상호작용의 질이 유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11개 기관의 교사들과 연구자가 각 2회에 걸쳐 상호작용의 수준과 내용을 토의하였다. 유아의 어머니는 개인 및 부모 변인과 사회적 유능성에 관한 설문지에 참여하였다. 설문지는 총 245부를 배부하고, 이주일 후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무응답이 많은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18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22.0에 의해 분석되었다. 유아의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와 사회적 유능성의 일반적 경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모든 하위영역 및 총점에 대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연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인타당도를 산출하고,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통한 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다. 개인변인에 따른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와 사회적 유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유아의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와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 계수를 산출한 후, 유아의 개인변인과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의 투입방법은 단계별 투입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단계별 투입방법은 통계적 유의도가 낮은 독립변수를 제외하고 중회귀식을 얻는 방식이다. 회귀분석 후, 회귀식이 지닌 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별 분석에 앞서, 유아의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와 사회적 유능성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과 같이, 연구 대상 유아의 공감의 평균은 1.90( $SD = .48$ )으로 나타났고, 동정심의 평균은 1.73( $SD = .46$ )으로 나타났다. 공감의 평균이 동정심의 평균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효능성을 하위 요인 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적응의 평균은 3.06( $SD = .59$ ), 지도성의 평균은 3.03( $SD = .75$ ), 긍정적 상호작용의 평균은 3.01( $SD = .75$ ), 협조성의 평균은 2.94( $SD = .59$ ), 활동 참여의 평균은 2.93( $SD = .63$ ), 대인행동의 평균은 2.81( $SD = .69$ ), 제안성의 평균은 2.76( $SD = .66$ ), 유능성의 평균은 2.47( $SD = .72$ )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요인 중에는 정서적 적응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

능성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6> 도덕적 정서와 사회적 유능성의 경향 (N=182)

구분	하위요인	Min	Max	M	SD
도덕적 정서	공감	.00	3.00	1.90	.48
	동정	.00	3.00	1.73	.46
사회적 유능성	제안성	.40	4.00	2.76	.66
	협조성	1.00	4.00	2.94	.59
	긍정적 상호작용	1.33	4.50	3.01	.75
	유능성	.00	4.00	2.47	.72
	지도성	1.00	4.00	3.03	.75
	대인 행동	.86	4.00	2.81	.69
사회적 효능성	활동 참여	1.25	4.00	2.93	.63
	정서적 적응	1.50	4.00	3.06	.64

### 1. 개인 및 부모변인에 따른 유아의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의 차이

개인 및 부모변인에 따른 유아의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들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개인변인에 따른 유아의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개인변인에 따른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의 차이 (N=182)

구분	n	도덕적 정서			
		공감		동정	
		M	SD	M	SD
유아의연령					
4세	90	1.80	.59	1.71	.57
5세	92	1.94	.43	1.74	.42
t		2.429*		.229	
어머니학력					
고졸 이하	66	1.82	.49	1.68	.48
전문대 졸업	42	1.95	.51	1.76	.51
대학교 졸업	57	2.00	.40	1.77	.37
대학원 졸업	17	2.00	.39	1.88	.41
F		1.546		.752	
아버지학력					
고졸 이하(a)	82	1.80	.54	1.61	.52
전문대 졸업(b)	42	2.01	.34	1.69	.29
대학교 졸업(c)	40	1.96	.42	1.81	.44
대학원 졸업(d)	18	2.10	.39	1.89	.45
F		2.501*		2.007*	
사후검증		a < d		a < d	

\*p < .05.

<표 7>과 같이, 유아의 연령에 따른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에서는 공감( $t = 2.429,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5세 유아의 공감이 4세 유아의 공감과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에서는 공감( $F = 2.501, p < .05$ )과 동정심( $F = 2.007,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 상호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감에서 고졸의 학력을 지닌 아버지의 자녀와 대학원 졸업의 학력을 지닌 아버지의 자녀 집단 간( $p < .05$ )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2. 유아의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와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유아의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와 사회적 유능성이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와 사회적 유능성의 상관관계 (N=182)

구분	공감	동정	사회적 능력				사회적 효능성			
			제안성	협조성	긍정적 상호작용	유능성	지도성	대인 행동	활동 참여	정서적 적응
공감	1									
동정	.766**	1								
제안성	.077	.031	1							
협조성	.123	.121	.364**	1						
긍정적 상호작용	.261**	.187*	.478**	.510**	1					
유능성	.259**	.190*	.470**	.475**	.495**	1				
지도성	.217**	.256**	.372**	.620**	.592**	.504**	1			
대인 행동	.255**	.183*	.479**	.643**	.662**	.610**	.691**	1		
활동 참여	.129	.092	.399**	.345**	.344**	.351**	.484**	.486**	1	
정서적 적응	.174*	.117	.278**	.578**	.446**	.490**	.627**	.742**	.544**	1

\* $p < .05$ , \*\* $p < .01$ .

<표 8>과 같이, 유아의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와 사회적 유능성은 일부 하위요인에 따라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은 사회적 능력의 긍정적 상호작용( $r = .261, p < .01$ ), 유능성( $r = .259, p < .01$ ), 지도성( $r = .217, p < .01$ ), 사회적 효능성의 대인 행동( $r = .255, p < .01$ ), 정서적 적응( $r = .174, p < .05$ )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동정은 사회적 능력

의 긍정적 상호작용( $r = .187, p < .01$ ), 유능성( $r = .190, p < .05$ ), 지도성( $r = .256, p < .01$ ), 사회적 효능성의 대인 행동( $r = .183, p < .05$ )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공감은 제안성, 협조성, 활동 참여와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동정심은 제안성, 협조성, 활동 참여, 정서적 적응과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 3. 유아의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가 사회적 유능성의 상승과 관련이 있음을 전제로 할 때, 그 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이들 사이의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의 총점이 사회적 유능성의 총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사회적 유능성 전체에 미치는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의 영향

구분	총점			사회적 능력 총점			사회적 효능성 총점		
	B	$\beta$	t	B	$\beta$	t	B	$\beta$	t
공감, 동정심 총점	.251	.219***	14.902	.243	.212***	14.687	.513	.212**	2.780
R		.219			.212			.276	
R <sup>2</sup>		.048			.045			.076	
F		8.473**			7.942**			3.414**	
상수		2.419			2.096			76.632	

\*\* $p < .01$ , \*\*\* $p < .001$ .

<표 9>와 같이, 공감 및 동정심의 총점은 사회적 유능성의 총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효능성 전체 총점의 4.8%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감 및 동정심의 총점은 사회적 능력의 총점과 사회적 효능성의 총점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능력 총점의 4.5%와 사회적 효능성 총점의 7.6%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연령과 아버지의 학력은 중다회귀분석의 처리에서 제외되어 영향력이 입증되지 않았다.

하위 영역별 영향력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적 능력의 각 요인에 미치는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과 같이, 공감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 중 긍정적 상호작용,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상호작용의 6.9%, 유능성의 6.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정심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 중 지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지도성의 4.7%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사회적 능력의 각 요인에 미치는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의 영향

구분	제안성			협조성			긍정적 상호작용			유능성			지도성		
	B	$\beta$	t	B	$\beta$	t	B	$\beta$	t	B	$\beta$	t	B	$\beta$	t
공감	.278	.201	1.686	.128	.102	.862	.379	.285**	2.461	.299	.274**	2.356	.294	.188	1.581
동정	-.133	-.093	-.781	.065	.051	.427	.043	.031	.271	.045	.040	.341	.306	.238**	2.036
R	.142			.145			.262			.245			.218		
R <sup>2</sup>	.020			.021			.069			.060			.047		
F	1.736			1.801			6.181**			5.367**			4.171*		
상수	11.432			13.375			2.151			2.384			2.604		

\* $p < .05$ , \*\* $p < .01$ .

반면, 공감은 제안성, 협조성, 지도성에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동정심은 제안성, 협조성, 긍정적 상호작용,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효능성의 각 요인에 미치는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사회적 효능성의 각 요인에 미치는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의 영향

구분	대인 행동			활동 참여			정서적 적응		
	B	$\beta$	t	B	$\beta$	t	B	$\beta$	t
공감	.392	.269**	2.320	.303	.230*	1.984	.301	.204	1.728
동정	.034	.022	.192	.042	.031	.269	.060	.039	.330
R	.253			.255			.176		
R <sup>2</sup>	.064			.065			.031		
F	5.732**			5.837**			2.686		
상수	2.119			11.445			2.566		

\* $p < .05$ , \*\* $p < .01$ .

<표 11>과 같이, 공감은 유아의 사회적 효능성 중 대인 행동과 활동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공감은 대인 행동의 6.4%, 활동 참여의 6.5%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감은 정서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동정심은 유아의 사회적 효능성의 대인 행동, 활동 참여, 정서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연령과 아버지의 학력은 중다회귀분석의 처리에서 제외되어 영향력이 입증되지 않았다.

회귀식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 한계가 1미만으로 확인되어 자기 상관이 없음이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도덕적 정서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공감과 동정심의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정서 중 공감에서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가 타인의 감정이나 의견에 자신도 그렇다는 느낌을 점차 많이 갖게 됨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진영(1987), 장미선과 문혁준(2004), Feshbach와 Roe(1968), Hughes, Tingle 그리고 Sawin(1981)의 연구에서 유아의 연령에 따라 공감수준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반면 유아의 동정심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Martha와 오병선(2008)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동정심은 하락한다고 논의하였는데, 유아의 동정심과 관련된 국내연구의 부족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감안한다면, 인간 동정심의 정점은 언제인지, 동정심의 하락이 유아기에도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그 요인은 무엇이며, 유아기 동정심의 경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유아의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 공감과 동정심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대학원 졸업의 학력을 지닌 아버지의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지닌 아버지의 자녀보다 공감과 동정심,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지닌 아버지의 자녀보다 타인의 상황에 대하여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는 느낌을 더 많이 갖고, 타인의 어려운 처지를 딱하고 가엾게 여기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의 공감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분석한 신건호(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55-97개월 아동을 8년에 걸쳐 종단적으로 연구한 결과로 아버지 변인이 아동의 동정심에 안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분석한 Michalik et al.(2007)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과거 부모 변인과 공감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아버지 변인 보다 어머니 변인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학력 변인이 공감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사회진출과 다양한 가족 체계의 변동으로 현대 사회에서 점차 중요시 되고 있는 아버지의 영향에 대하여 재해석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하겠다.

둘째, 유아의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는 사회적 유능성과 일부 하위요인에 따라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은 사회적 유능성의 긍정적 상호작용, 유능성, 지도성, 대인 행동, 정서적 적응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동정심은 사회적 유능성의 긍정적 상호작용, 유능성, 지도성, 대인 행동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공감능력이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유연경과 유미숙(2012)의 연구결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감이 사회적 능력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홍기묵(2005)의 연구결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조한익과 이미화(2010)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동정심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도성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동정심을 영적 지도

력의 핵심이라고 제안한 헨리 나웬, 도날드 맥네일 그리고 더글라스 모리슨(1976)의 연구와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동정심이 도덕적 동기에 의한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음을 분석한 Malti, et al.(200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헨리 나웬 등(1976)은 지도자는 자신이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열고 듣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목소리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고뇌와 기쁨에 참여하는 동정심은 참된 지도력의 기초가 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유아의 동정심에 관한 개념적·연구 방법적 논의조차 미진한 현실이므로, 유아의 동정심에 관한 연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음이 적극 요청된다.

셋째, 영향력의 검증에서 유아의 공감과 동정심의 총점은 사회적 유능성의 총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공감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중 긍정적 상호작용, 유능성, 개인 행동, 활동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동정심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중 지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가 사회적 유능성을 설명하는 일정 요소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공감이 사회적 기술에 유의한 설명력이 있었다는 김경미, 김혜리, 정명숙, 양혜영 그리고 구재선(2008)의 연구결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의 공감능력이 사회적 능력에 유의미한 설명력이 있었다는 전은정(2009)의 연구결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감이 사회적 기술에 유의한 설명력이 있었다는 구재선 등(2008)의 연구결과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도덕적 감정인 공감과 동정심이 사회적 유능성에 4.7~6.9% 정도의 영향력이 있음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공감과 사회적 능력들 간에 밝혀진 연구의 결과에 비하여 다소 미미한 영향력이다. 다소 미미한 영향력이 나타난 원인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연구방법에서의 문제로 생각되는데, 연구 대상의 수와 관련된 문제와 설문지 응답자가 누구인지와 관련된 문제로 예측할 수 있다. 연구 대상의 수와 관련된 문제는 중학생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 김광웅 등(2005)의 연구와 구재선 등(2008)의 연구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김광웅 등(2005)은 633명의 대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결과 25% 정도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반면, 구재선 등(2008)은 76명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공감의 효과를 35% 정도의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도덕적 감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의 수를 소수로 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언어로 모두 표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도덕적 감정과 같은 세밀한 인간 내적 요인을 연구하는 경우, 연구의 대상을 소수로 하여 연구하는 것이 보다 정교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설문 응답자가 누구인지와 관련된 문제는 교사 응답의 단일 방식을 사용한 김경미 등(2008)의 연구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응답 및 교사 응답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한 유아에 대하여 두 명의 응답자가 각각 다른 시각으로 평정하였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비교적 객관적으로 응답한 교사의 응답보다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응답한 내용이 더 관대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설문의 평정을 유아의 어머니이든지 또는 교사이든지 한 사람이 단일하게 평정하는 것이 더 정확한 자료를 수

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되어, 도덕적 정서 관련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을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만 4세,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도덕적 정서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공감과 동정심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아가 타인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공감은 사회적 유능성의 긍정적 상호작용, 유능성, 대인 행동,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타인의 어려운 처지를 가엾게 여기며 도와주려는 동정심은 사회적 유능성의 지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과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의 도덕적 정서 중 공감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유능성과 활동 참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유아의 도덕적 정서 중 동정심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적 지도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를 통해 유아기 도덕교육 및 정서교육 프로그램의 기초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폭을 영아기로 확장함으로써, 영아기·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의 공감과 동정심이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보다 포괄적이고 종단적인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기의 도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들 중 아버지의 영향력이 영아기·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에 어떻게 통제되고 변화되는지 살펴보는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도덕적 정서들(죄의식, 수치심, 비난, 혐오, 분노, 자괴심, 감탄, 공감, 동정, 존경, 감사 등)이 유아의 내적 요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영유아시기에 나타나는 각각의 도덕적 정서들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매우 일천한 실정이므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급하게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문헌

- 구재선, 김혜리, 양혜영, 김경미, 정명숙, 이수미, 최현옥 (2008). 중학생의 마음이해 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2), 17-33.
- 김경미, 김혜리, 정명숙, 양혜영, 구재선 (2008). 유치원 아동의 마음이론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21-39.
- 김광웅, 조유진, 홍기묵 (2005). 심리적 성장환경이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2(3), 1-13.
- 김용환 (2003). 공감과 연민의 감정의 도덕적 함의. **한국철학회**, 76, 155-180.
- 김진아, 임정애 (2006).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행동의 관계. **아동학회지**, 27(2), 85-100.
- 김태훈 (2013). 도덕적 정서의 성격과 종류에 관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38, 81-98.
- 김해주 (2013). 기질과 공감능력이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미 (2010). 유아의 공감능력 및 언어표현능력 수준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 (2012). 유아의 마음읽기·공감하기와 또래 인기도 간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희 (1996). 공감의 구성요소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연구. **교육학연구**, 34(5), 143-166.
- 신건호 (2003). 아버지의 특성과 인간지향적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공감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논문집**, 42, 1-20.
- 연진영 (1987). 아동의 공감발달과 관련 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연경, 유미숙 (2012). 성별에 따른 아동의 공감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연구**, 25(1), 17-32.
- 윤지영, 이용주 (2006). 유아의 정서지능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연구**, 3(1), 146-159.
- 이성진 (2005). 학령기 아동의 공감능력과 또래수용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옥 (2003). 교사용 유아의 사회적 능력 평가척도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7(1), 141-167.
- 이인재 (2003). 도덕적인 삶을 위한 감정의 역할과 감정교육에 관한 연구. **윤리연구**, 54(3), 167-207.
- 이지연, 광금주 (2010). 5세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의 예언변인들: 종단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1), 85-102.
- 장미선, 문혁준 (2004). 유아의 공감에 관련된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9), 53-66.
- 장영주 (2013). 캐서린 부스의 ‘교감신학’ 연구-이은선의 ‘한국생물여성영성 신학’의 관점에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은정 (2009). 아동의 공감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2007). **발달심리학, 전생애 인간발달**. 서울: 학지사.
- 조은진 (1993). 유아의 감정이입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 연구의 개념적, 방법론적 문제 분석. **아동학회지**, 14(2). 137-147.
- 조한익, 이미화 (2010).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7(11). 140-159.
- 조효진, 손난희 (2006). 공감능력과 이타행동. **상담학연구**, 7(1). 1-9.
- 최미숙 (2010).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의 발달 특징 및 공감능력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5(6), 255-271.
- 최양미, 이태섭, 김보현 (2014). 또래 인기도에 따른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정서 및 도덕적 행동의 차이 연구. **유아교육연구**, 34(2). 49-75.
- 칸트사전 (2015). 도덕적 정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12685&cid=41908&categoryId=41954>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 하수경, 노희정 (2014). 초등 도덕교과에서의 감정교육 방법. **초등도덕교육**, 44, 433-456.
- 한규령 (2005). 유아의 또래 관계 증진을 위한 신체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헨리 나웬, 도날드 맥네일, 더글라스 모리슨 (1976). 동정심: 영적 지도력의 핵심. **사목연구**, 2, 203-217.
- 홍기목 (2005).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dnersh, F., & Peck, C. A. (1986). Assessing social environments : Effect of peer characteristics on the social behavior of children with severe handicaps. *Child Study Journal*, 16, 315-329.
- Baron-Cohen, S., & Wheelwright, S. (2004). The empathy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 Aspiger's syndrome or high 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Journal of Autism & Developmental Disorders*, 34(2), 163-175.
-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 Eisenberg, N., & Fabes, R. A. (1991). Prosocial behavior and empathy: A multimethod,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Clark, M.(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p. 34-61). CA: Sage, Newbury Park.
- Feshbach, N. D., & Roe, K. (1968). Empathy in sex and seven year old. *Child Development*, 39, 133-145.
- Hoffman, M. L. (2001).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ges, R., Tingle, B. A., & Sawin, D. B. (1981). Development of empathic understanding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 122-128.
- Katz, L. G., & McCellan, D. E. (1997). *Fo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 The teacher's role*. NAEYC Research into Practice Series, 8. Michigan: NAEYC.
- Malti, T., Eisenberg, N., Kim, H., & Buchmann, M. (2013).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ympathy, Moral Emotion Attributions, and Moral Reasoning: The Role of Parental Support. *Social Development*, 22(4), 773-793.
- Malti, T., Gummerum, M., Keller, M., & Buchmann, M. (2009). Children's Moral Motivation, Sy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80(2), 442-460.
- Martha C. N., 오병선 (2008). Compassion: Human and Animal. *서강법학연구*, 10(2), 201-231.
- Michalik, N. M., Eisenberg, N., Spinrad, T. L., Ladd, B., Thompson, M. & Valiente, C. (2007).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Parental Emotional Expressivity and Sy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in Adolescence. *Social Development*, 16(2), 286-309.
- Paul, R. E., & Robert, O. (2012). Humanity On a Tightrope: Thoughts on Empathy, Family, and Big Changes for a Viable Future. *공감의 진화*(고기탁 옮김). 서울: 에이도스(원판 2010).
- Pease, D., Clark, S. G., & Crase, S. J. (1979). *Iowa social competency scales : school age and preschool manual*. Iowa State Research Foundation, Inc.
- Rubin, K. H., & Schneider, F. W. (1973).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judgement, egocentrism, and altruistic behavior. *Child Development*, 44, 661-665.
- Rose-Krasnor, L. (1977). The nature of social competence: A theoretical review. *Social Development*, 6, 111-135.
- Scheler, M. (2009).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 *공감의 본질과 형식*(이을상 옮김).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원판 1973).
- Smith, A. (2009).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도덕 감정론*(박세일, 민경국 옮김). 서울: 비봉출판사(원판 1996).
- Spinrad, T. L., Losoya, S. H., Eisenberg, R., Fabes, R. A., Shepard, S. A., Cumberland, A., Guthrie, I. K., & Murphy, B. C. (1999). The relations of parental affect and encouragement to children's moral emotions and behavior. *Journal of Moral Education*, 28(3), 323-337.
- Walker, L. J., & Taylor, J. H. (1991). Family Interactions and Development of Maral Reasoning, *Child*

*Development*, 62(2), 264-283.

Wilson, J. (1989). Philosophical Issues in Moral Education and Development,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23(1), 129-133.

##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analyze how children's moral emotions affect their social competence. Moral emotions focus on empathy and sympath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offer basic data for establishing both amoral and emotional educational program.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involve 182 children(either 4 or 5 year olds) that have lived in Korea.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have yielded some interesting results. First, it is found that children's empathy and sympathy are dependent on children's age and their fathers' educational level; as a result, increasing the age of the children and their fathers' educational level are found to increase empathy and sympathy. Secondly, both empathy and sympathy scores are found to have correlation to the scores of positive reciprocity, cap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 on social competence. Sympathy scores increase with respect to the leadership scores of social competence. Lastly, children's empathy is a factor that affects positive reciprocity, cap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 and participation on social competence. Their sympathy affects leadership on social compet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trengthening the empathy and sympathy levels of children could partially enhance their social competence.

■ **Key words** moral emotions, empathy, sympathy, social competence

논문투고	2015.08.15
수정원고접수	2015.11.08
최종게재결정	2016.02.04